

## 한국 사람들은 심리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손 난 희†

김 은 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다른 학문들에 비하여 한국 사람들의 심리학에 대한 상대적 인식은 어떠한가?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일반사람을 통틀어 총 3,318명의 참여자들에게 연구자들이 제작한 설문지를 실시하여, 심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7개 분야와 의학과 자연과학 2개 분야에 대한 개인적 흥미도, 사회공헌도, 유망도, 학문적 중요도, 전문성, 개인적 지식정도에 대한 이미지를 8-점 Likert 척도로 평정, 비교하도록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ANOVA, 중다회귀, 그리고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사람들은 다른 학문들에 비해 심리학에 대한 흥미가 높고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반면, 심리학이 사회에 공헌하는 바는 매우 낮다고 인식하였다.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심리학의 이미지

---

\* 이 논문은 2005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 교신저자 : 손 난 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 02)3277-2637, E-mail : resonating@hanmail.net

일반사람들의 심리학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심리학이 철학으로부터 독립하여 1892년 12명의 회원으로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가 창설된 이래, 심리학자들은 일반사람들의 심리학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궁금하게 여겨왔다(Benjamin, 1986). 그 동안 심리학이 전문영역을 넓히고 연구의 질적 측면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일반사람들에게 심리학의 학문적 중요성과 사회 공헌도, 그리고 개인적 흥미도 등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보고는 그리 많지 않다.

1946년 서울대학교에 심리학과가 처음 설립된 것으로 시작된 한국 심리학의 현황을 살펴보면, 230여개 4년제 대학교에 심리학과가 있는 대학은 2005년 현재, 32개 대학뿐이다(한국 심리학회, 2005). 게다가, 심리학은 다른 학문분야, 특히 자연과학분야에 비해 취업률, 교수수, 연구비 지원 등에서 낮은 형편이다.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2004 학과정보'에 따르면 취업률 학과 순위에서 심리학은 114개 가운데 112위를 기록하였다(최영순, 하필규, 이순란, 이운선, 2003). 초등교육, 특수교육, 유아교육을 포함하는 교육계열(취업률 = 87.9%), 의학계열(87.2%), 예체능계열(64.4%), 경영경제학계열(60.1%) 과 공학계열(60.1%) 등의 학과들과 비교할 때, 심리학(44.9%)은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또한, 연구자들이 각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평균 교수 수를 보면, 심리학과는 타과에 비해 교수 임용도가 낮다. 즉, 심리학과가 있는 4년제 정규대학을 위주로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중앙대 등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상에 올라있는 정교수, 부교

수, 조교수, 전임강사 수를, 자연과학대학에서는 생물학과 물리학, 의대에서는 의학, 사회과학대학에서는 문헌정보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그리고 심리학 등 모두 10개 학과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의학의 평균 교수 수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고, 정치외교학, 화학, 물리학, 경제학도 평균 15명에서 20명 이상이였다. 사회학, 신문방송학과도 평균 8명이 넘는 반면, 심리학과는 사회복지학과 다음으로 제일 낮은 평균 7.56명 이였다.

연구비수혜 실적에서도 심리학은 다른 사회과학분야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01- 03년 동안 심리학은 한국 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사회과학 학문별 평균액수인 58억4천7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51억4천9백만원을 지원받았다(한국학술진흥재단, 2004). 이처럼 심리학에 대한 낮은 사회적 지지는 상대적으로 높지 못한 심리학 이미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Benjamin, 1986).

심리학의 이미지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차재호(1979), 김성태(1979), 이훈구(1984)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심리학회나, 심리학자들의 현황을 제시하거나(김성태, 1979), 참여자들의 심리학에 대한 인식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연구하였거나(차재호, 1979), 심리학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에 대한 연구였다(이훈구, 1984). 그러므로 학문간 상대적 비교는 불가능하였다. 이 연구와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차재호(1979)의 연구결과를 보면, 일반인들은 심리학을 과학보다는 철학에 가깝다고 보며, 대체로 필요한 학문이나, 심리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고, 직업으로서의 유망성은 보통보다는 약간 더 밝게 보

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차재호(1979)의 연구는 심리학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다른 학문분야와 비교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학문에 대한 심리학의 상대적 이미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소수의 제한된 대상에게 설문 실시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심리학의 역사가 더 오랜 미국에서는 심리학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정신건강 전문가로서의 심리학자 선호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일찍부터 있었다. 최초로 조사연구를 한 Guest(1948)에 이어, Janda, England, Lovejoy와 Drury(1998)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후속 연구들이 있었다.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사람들은 대체로 심리학에 대한 태도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Guest, 1948; Janda, England, Lovejoy, & Drury, 1998; Wood, Jones, & Benjamin, 1986).

심리학이 학문으로서 발전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학문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학문의 중요성과 공헌점, 전문성에 대한 일반인과 의사소통과 홍보가 꼭 필요하다. APA는 여러 일반인들의 심리학에 대한 이미지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심리학과 심리학자에 대한 일반사람들과 언론인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와 교육에 큰 관심과 노력을 쏟고, 이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다(Fall, Levitov, Jennings, & Eberts, 2000).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심리학의 홍보를 학회 설립목적에 명시해놓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을 위한 홍보나 교육을 실시한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홍보와 교육을 위한 첫단계는 한국 심리학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Farberman, 1997). 따라서, 이 연구는 심리학 이미지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장래 심리학 전공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고

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 사람들이 다른 학문에 비해 심리학에 대해 가지는 상대적 이미지를 파악함으로써 심리학 홍보와 일반인과의 소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다른 학문분야들에 비해, 심리학에 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방 법

### 연구대상

성인, 대학생, 고등학생 총 3,318명(남 1,272명, 여 2,046명)이 참여하였다. 고등학생들은 주로 중산층 자녀들이 다니는 서울시내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3개에서, 대학생들은 성별과 학과별 균형을 고려한 전국 10개 대학에서 자료를 모았다. 일반인들은 연구자들이 아는 소수의 개인과, 일반기업체회사원, 제약회사근로원, 초·중·고등학교교사, 공공기관직원, 주부 및 노인복지관 회관문예단체회원 등 20개 단체로부터 수집하였다. 모두가 연구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동의하였으며, 공공기관이나 회사를 선택할때는 연령과 학력, 직업 등을 고려하였다. 대학생과 일반인의 전공비율은 계열별로 사회(20.3%), 인문(10.6%), 자연(13.1%), 공학(12.2%), 의학(3.8%), 경영(15.3%), 교육(11.3%), 예체능(5.8%), 무반응(7.5%)이었다. 일반인들의 직업구분은 노동부 직업구분을 따랐으며, 주로 대졸 전문직(69.7%), 기능공(4.6%), 고졸사무직(4.2%), 서비스(2.0%), 기능원(4.5%), 주부 및 무직(13.5%), 판매직(1.1%) 등 이었다. 참여자들의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참여자들의 특성

영역	고등학생 (N = 663)	대학 (N = 1646)	일반인 (N = 1009)
나이범위 (M, SD)	15 ~ 19세 (M = 17.05, SD = .93)	18 ~ 51세 (M = 22.33, SD = 4.13)	18세 ~ 72세 (M = 33.80, SD = 9.43)
성별	남 253명 여 410명	남 471명 여 1,175명	남 548명 여 461명
교육정도	고 1 ~ 고 2	대학 및 대학원 재학	고졸 112명(11.1%) 전문대졸 46명( 4.6%) 대졸 710명(70.2%) 대학원졸 142명(14.1%)

측정도구

**학문에 대한 이미지 평정**(이하 설문지라 부름)

연구자들은 이제까지의 선행연구, 특히 Janda 등(1998)을 기반으로 질문을 대략 다음 5가지로 간추렸다.

- a) 학문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흥미도 (Farberman, 1997; Guest, 1948; Wood 등, 1986),
- b) 학문의 사회 공헌도(Janda 등, 1998; Wood 등, 1986), c) 장래 유망도(Dollinger & Thelen, 1978), d) 학문의 중요도(Janda 등, 1998; 차재호, 1979), e) 일반사람들과 그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같은 전문가간의 지식차이를 말하는 전문성(Benjamin, 1986; Farberman, 1997; Janda 등, 1998; Witley, 1959) 이다. 그리고, 이 5가지 질문에 연구자들은 전문성 질문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당 학문에 대해 참여자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학문분야에 대한 개인지식정도를 묻는 질문을 추가, 총 6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심리학에 대한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비교대상이 아예 없거나, 소수의 학문만을 비교대상으로 했기 때

문에 상대적 비교준거가 불충분하였던 점을 보완하여 다수의 10개 학문분야를 함께 비교하도록 하였다. 특히, 상대적 비교연구를 한 Janda 등(1998)의 연구에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간의 인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사회과학내 심리학이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심리학과 비교하는 6개 학문 중 사회과학학문으로 사회학과 경제학 2개만이 포함되어있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과학 6개 학문들을 비교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표적학문인 심리학을 위시하여, 생물학, 의학, 물리학, 문헌정보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의 10개 학문분야에 대해 a) 응답자의 흥미도, b) 사회에 공헌하는 정도, c) 장래 유망성 d) 학문적 중요성 e) 일반 사람들과 각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사이의 그 학문에 대한 지식 차이 즉, 전문성, f)개인이 가진 지식정도 등 6개의 질문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질문은 8점 Likert 척도로, 1 = 그렇다, 중요하다, 흥미롭다, 8 = 그렇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흥미롭지 않다 등, 질문에 따라 적절

한 평정 수식어를 써서 반응하도록 하였다.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6개 질문 영역의 순서가 다르게 제시된 두 가지 질문지형 내에서 다시 각 질문영역별로 10개 학문분야가 각기 다른 순서로 제시되도록 하였다.

심리학 전공생 31명에게 실시한 3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10개 학문 각각 .66에서 .85범위로 평균 .77이었다. Cronbach alpha는 .65에서 .79까지의 범위로 평균 .72였다( $N = 2,839$ ). 신뢰도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높지는 않으나 이 연구의 표집수가 3,000명이 넘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신뢰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Nunnally, 1967).

### 절차

고등학생 집단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 승인을 얻은 해당 학교의 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하여 집단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 자유활동을 해도 좋다고 지시하였다(자유활동을 택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대학생 집단은 정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그 수업의 강사가, 집단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유형-참여자 짝은 무선적으로 하였다. 일반성인 집단은 대부분 회사나 기관에서 집단으로 실시하였고, 연구자들이 개인적으로 접촉한 소규모의 사람들은 개인별로 실시, 수집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는 평균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모든 참여자들에게 학문이미지에 대한 학문간 공동연구라고 강조 설명함으로써 심리학에 대한 요구효과(demand characteristics; Orne, 1962)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설문지 자체와 연구목적에 관한 참여자들의 추가질 의는 없었다.

### 결 과

불성실자료 48부를 제외한 3,318부의 자료 중, 심리학전공생들의 심리학에 대한 상향편향(upward bias)이 혼입되지 않도록 심리학 전공생 479명 (남 92명, 여 387명)을 제외한 나머지 2,839명에 대한 자료를 일차 분석하였다. 각 학문분야들의 질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10개 학문분야에서 심리학, 의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평균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ANOVA를 하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심리학, 의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평균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epsilon^2 = .16 \sim .39$ ,  $p's < .001$ ). 사후검증에서 심리학은 흥미도, 개인지식정도에서 가장 높았으나 전문성이 의학과 자연과학보다는 낮고, 공헌도는 가장 낮았다( $p < .001$ ).

각 질문에서 심리학과 사회과학평균간의 차이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나이, 성별, 직업을 예측변수로 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그 결과, 각 질문에 대한 회귀식의  $R^2$  은 .01 ~ .07( $p's < .001$ )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였으나 표집크기를 고려할 때, 실제적인 의미는 낮다고 생각되었다. 나이변수는 유망도에서( $t = 2.05$ ,  $p < .05$ ), 성별변수는 흥미도( $t = 4.00$ ,  $p < .0001$ ), 중요도( $t = 2.14$ ,  $p < .05$ ), 전문성( $t = -3.21$ ,  $p < .01$ ), 자기지식( $t = 6.02$ ,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였다. 공학( $t = -4.52$ ,  $p < .001$ ), 의학( $t = 2.10$ ,  $p < .05$ ) 계열 전공자일수록 심리학의 공헌도를 다른 사회과학학문들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1차 분석에서 제외하였던 심리학 전공 대학생들( $N = 179$ )이 다른 전공 대학

표 2. 각 질문영역별 10개 학문분야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학문분야	흥미도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전문성	개인지식
심리학	M	5.53	5.05	5.47	5.62	5.76	3.96
	SD	1.96	1.74	1.77	1.67	1.62	1.64
생물학	M	3.89	5.52	5.36	5.71	6.29	3.16
	SD	2.04	1.71	1.74	1.74	1.48	1.55
의학	M	4.54	6.68	6.52	6.80	7.09	2.93
	SD	2.09	1.43	1.60	1.49	1.41	1.53
물리학	M	3.17	5.38	4.95	5.40	6.61	2.85
	SD	1.97	1.83	1.81	1.93	1.51	1.63
문헌정보학	M	3.13	4.27	4.21	4.54	5.03	2.94
	SD	1.73	1.65	1.61	1.71	1.62	1.48
사회복지학	M	4.57	5.57	5.71	5.93	4.77	3.90
	SD	2.08	1.69	1.77	1.69	1.65	1.71
경제학	M	4.91	5.83	5.85	6.12	5.56	3.90
	SD	1.96	1.57	1.50	1.49	1.61	1.74
사회학	M	4.61	5.18	5.00	5.55	4.94	3.89
	SD	1.89	1.64	1.59	1.55	1.50	1.69
정치외교학	M	4.18	5.15	5.31	5.51	5.48	3.21
	SD	1.97	1.89	1.77	1.72	1.67	1.51
신문방송학	M	4.80	5.31	5.63	5.38	5.05	3.49
	SD	1.98	1.68	1.61	1.64	1.48	1.57

주. N = 2,839. 모든 질문영역에서 평정범위는 1 ~ 8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특징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표 3. 각 질문에서 심리학과 의학, 심리학을 제외한 사회과학평균, 자연과학평균 비교

		흥미도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전문성	개인지식
심리학	M	5.53	5.05	5.47	5.62	5.76	3.96
	SD	1.96	1.74	1.77	1.67	1.62	1.64
의학	M	4.54	6.68	6.52	6.80	7.09	2.93
	SD	2.09	1.43	1.60	1.49	1.41	1.53
사회과학	M	4.37	5.22	5.29	5.51	5.14	3.55
	SD	1.27	1.24	1.15	1.20	1.13	1.23
자연과학	M	3.53	3.45	5.16	5.56	6.45	3.00
	SD	1.76	1.57	1.59	1.64	1.36	1.44
F		794.15*	1105.12*	771.73*	642.27*	1822.63*	558.45*
사후검증		①>②>③>④	②>④>③>①	②>①>③>④	②>①>③=④	②>④>①>③	①>③>④=②

주. \*p < .001. N = 2,839.

생들(N = 1646)에 비해 심리학에 대한 태도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집단 t 검정으로 살펴보았다. 심리학 전공 대학생들은 다른 전공 대학생들에 비해 6개 질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심리학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t = 10.70 \sim 20.19, p's < .001$ ).

## 논 의

학문적 발전과 심리학전공자들의 사회공헌을 위해서는 심리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심리학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심리학의 사회적 현황과 심리학에 대해 일반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서 시작된다(Farberman, 1997; Wood 등, 1986). 걸프전쟁 중 심리학에 대한 무절제한 홍보와 노출이 오히려 일반인들의 심리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였다(Raviv & Weiner, 1995) 보고는 심리학에 대한 홍보를 용의주도하게 준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가지 질문(흥미도,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전문성, 개인지식 정도) 모두에서, 심리학, 의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진 이미지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 차이는 학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전공 선택, 전문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선행 연구(e.g., Janda 등, 1998)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이미지에 큰 차이가 있었다. 자연과학은 대체로 전문성, 공헌도에서는 높게, 흥미도와 개인지식 정도에서는 낮게 나타났고, 반대로 사회과학은 흥미도와 개인지식 정도에서는 높게,

공헌도와 전문성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심리학을 포함한 대부분 사회과학에 대해 일반인들의 흥미가 높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 학문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 학문이 직접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바나 전문성은 자연과학에 비해 떨어진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둘째, 심리학은 의학, 사회과학평균, 자연과학평균과 비교할 때 흥미도,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정도에서 가장 높았다. 이것은 심리학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미국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반면, 공헌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미국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Guest, 1948; Janda, England, Lovejoy, & Drury, 1998; Wood, Jones, & Benjamin, 1986).

각 질문영역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선행연구(Guest, 1948; Wood 등, 1986)에서 일반적인 호감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흥미도 영역에서 심리학은 10개 학문분야 중 가장 높았다. 이것은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국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b) 학문이 사회에 공헌하는 정도에서 심리학은 10개 학문분야 중 위에서 9번째로, 매우 낮게 인식되었다. 이것은 Janda 등(1998)의 연구나, 응답자의 45.41%가 심리학이 그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Wood 등(1986) 미국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학문발전에 가장 중요한 이미지 영역으로 들고 있는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낮다는 것은 미국과는 달리 한국 심리학의 미래를 위해 걱정스러운 결과이다. 특히, 이 질문은 사람을 돕는 학문인 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중에서 심리학의 사회

공헌에 대한 낮은 이미지는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등이 함께 종사하는 정신건강영역에서 일반인들이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구할지와 밀접히 관련될 것이다. 따라서 심리학의 사회공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c) 심리학에 대한 유망성은 10개 학문분야 중에서 5번째로 중간 수준이었다. 이 질문은 선행연구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Guest(1948)의 연구에서는 심리학의 유망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1967년 *American Psychologist* 에 보고된 조사연구에서는 선호하는 자녀들의 직업으로 심리학자가 제일 꼽혀졌다 (Clark & Martire, 1978). 그러나, 1978년 Dollinger와 Thelen 이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업으로서 심리학을 다른 24개의 직업과 비교 평가하도록 했을 때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었다.

d) 심리학의 중요성은 10개 학문분야 중 위에서 5번째로 역시 중간 수준이었다. 이것은 심리학과 비교할 사회과학 분야 중 경제학과 사회학만을 포함시킨 Janda 등(1998)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심리학의 중요성은 그런대로 인식하면서도 사회적 공헌도는 이와 상응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지금으로서는 두드러지게 앞서는 해석이 없다.

e) 일반인과 그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사이의 지식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은 심리학의 전문성은 10개 학문분야 중 위에서 4번째로, 의학이나 자연과학 분야보다는 낮았지만 사회과학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슷한 연구질문과 연구방법을 사용한 Janda 등(1998)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반인들의 심리학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다른 사회

과학학문보다는 높은 반면 사회공헌도가 매우 낮다는 것은, 심리학의 전문지식이 그다지 쓸모있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f) 학문에 대한 개인적 지식 정도에 대해 응답자들은 10개 학문분야 중 심리학에 대해 스스로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전문성이란 심리학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간의 일반적 지식차이 정도를 말하고, 개인적 지식정도란 응답자 개인이 심리학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정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심리학은 전문성이 높은 동시에 개인적 지식정도 또한 높았다. 이 두가지 거의 상반되어 보이는 결과는 ‘상식’으로써의 심리학 이미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심리학이 과학적인 학문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일반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대답한 Witley(1959)나, 물리학자, 생물학자, 사업가, 심리학자, 쇼핑객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50%가 심리학은 과학이 아니라고 한 Kabatznick (1984)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Faberman (1997)의 연구처럼 일반인들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그럴만한 충분한 심리학적 지식을 가졌다고 여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심리학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리적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동기를 억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전공생을 심리학 비전공 대학생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심리학 전공 대학생들은 다른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 비해 심리학을 훨씬 더 중요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크고, 유망하며, 전문성이 높은 학문으로, 그리고 심리학에 대해 스스로 많이 알



고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결과는 학문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를 반영하며, 일반인들에게 심리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일반 사람들의 심리학 이미지에 대한 외국선행 연구는 여러 개가 있으나 국내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미국선행연구들을 이 연구결과와 1:1로 비교하기에는 문화적 차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a) 시간적으로 50여년에 걸쳐 실시된 연구들의 자료수집을 한 시점에 차이가 있다. b) 심리학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타학문이 없는 연구가 많고, 비교학문이 있는 경우에도 그 수와 종류가 서로 다르다. c) 연구목적에 있어서 어떤 연구는 심리학에 대한 절대적 평정을, 또, 어떤 연구는 상대적 평정을 하였다. d) 연구대상이 어린이, 대학생, 일반인 등 다양하다. e) 참여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태도와 심리학자라는 직업에 대한 태도질문이 각각 있고, 특정 심리학 분야에 대한 태도를 묻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심리학을 넘어서 정신건강관련 직종들(정신과 의사, 상담심리사, 목사, 사회복지사 등)간의 태도를 비교하는 질문도 있었다. f) 심리학 일반분야에 대한 태도질문 내에서도 정서적 호감 정도를 묻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심리학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정도를 묻는 연구가 각각 있었다. 따라서 각 연구의 시기, 대상, 질문, 비교집단, 비교준거에 따라 심리학에 대한 태도연구의 결론은 매우 낮다는 보고(Furnham, 1983; Raviv & Weiner, 1995)부터 긍정적(Kabatnick, 1984; Webb & Speer, 1985;

Wood 등, 1986)이라는 보고까지 매우 다양한 편이었다.

심리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를 다른 학문분야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남자 키가 173cm이라면 큰 키인가, 작은 키인가? 하는 판단은 참조집단 없이는 어려운 것처럼, 학문간 비교 없이 심리학에 대한 전체적 이미지를 파악하기는 무척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심리학의 이미지를 여러 학문 분야, 특히 사회과학분야 학문들과 비교한 것은 이 연구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상대적인 비교를 목적으로 한 만큼, 심리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측정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심리학에 대한 개인지식정도가 심리적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동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밝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성태 (1979). 한국 심리학의 회고와 전망.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2, 314-322.
- 이훈구 (1984). 대학생은 심리학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사회심리학연구, 2, 250-266.
- 최영순, 하필규, 이순란, 이윤선 (2003). 2004년 학과정보.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차재호 (1979). 심리학에 대한 사회의 인식. 한

- 국 심리학회지: 일반, 2, 183-189.
- 한국심리학회 (2005). 국내 심리학과. retrieved May, 30, 2005 from [http://www.koreanpsychology.or.kr/blue-ver/blue-page/men u04\\_sub02.htm#top](http://www.koreanpsychology.or.kr/blue-ver/blue-page/men u04_sub02.htm#top)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 년도별 학문분야별 통계. retrieved June, 9, 2004 from <http://www.krf.or.kr/nkrf/index.php>
- Benjamin, L. T., Jr. (1986). Why don't they understand us? A history of psychology's public image. *American Psychologist*, 41, 941-946.
- Clark, R., & Martire, G. (1978). The image of psychiatry today. *Psychiatric Opinion*, 15, 10-15.
- Dollinger, S. S., & Thelen, M. H. (1978). Children's perceptions of psychology. *Professional Psychology*, 9, 117-126.
- Fall, K. A., Levitov, J. E., Jennings M., & Eberts, S. (2000). The public perception of mental profession: An empirical examinatio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2, 122-134.
- Farberman, R. K. (1997). Public attitudes about psychologists and mental health: Research guide to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ublic education campaig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8, 128-136.
- Furnham, A. (1983). Social psychology as common sense.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36, 105-109.
- Guest, L. (1948).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psychologists. *American Psychologist*, 3, 135-139.
- Janda, L. H., England, K., Lovejoy, D., & Drury, K. (1998). Attitudes toward psychology relative to other disciplines. *Professional Psychologist: Research and Practice*, 29, 140-143.
- Kabatnick, R. (1984). *The public's perception of psychology: Attitudes of four selected grou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Nunnally, J. (1967).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Orne, M. T. (1962). On the social psychology of the psychological experimen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demand characteristics and their impl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17, 776-783.
- Raviv, A., & Weiner, I. (1995). Why don't they like us? Public image in Israel during the Persian Gulf War.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6, 88-94.
- Webb, A. R., & Speer, J. R. (1985). The public image of psychologist. *American Psychologist*, 40, 1063-1064.
- Witley, S. B. (1959). Public opinion about science and scientists. *Public Opinion Quarterly*, 23, 382-387.
- Wood, W., Jones, M., & Benjamin, L. (1986). Surveying psychology's public image. *American sychologist*, 41, 947-953.

1 차원고접수 : 2005. 3. 14.

수정원고접수 : 2005. 6. 10.

최종게재결정 : 2005. 6. 12.

## Public Images of Psychology in Korea

Nan Hee Sohn

Eun Sook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Korean public images of psychology relative to other disciplines were examined. A total of 3,318 volunteer participants rated six areas (i.e., interest, contribution to society, future prospect, importance, expertise, and personal knowledge) in 10 disciplines on a 8-point Likert scale with appropriate anchors. The data was analysed b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test. The results showed that psychology, compared to other disciplines, was rated high in personal interest and personal knowledge, but was rated low in contribution to society.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image of psychology*